

야마자키: 동경대학의 야마자키 히로시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전공은 사회학, 특히 의료사회학입니다. 평소 암, 에이즈, 완화 케어, 사별 비탄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테마, 즉 만화에서 나타나는 생사 문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입니다. 원래 이 세션에서는 제가 먼저 발표를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정 선생님의 발표가 보다 포괄적이고 개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발표를 부탁 드리고 제가 각론적으로 개별의 테마를 발표하는 것으로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폭 만화로 본 책임 추궁의 고찰 —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를 소재로

야마자키 히로시 (山崎 浩司)

1. 머릿말

원폭 피폭국 일본은, 그 불행으로 인해 특이한 체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피폭 체험을 「살아 남았다」가 아니라, 「살아 있다」라고 한 것은, 첫째, 산 흔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 남지 못한 무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둘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완료형으로 지금까지 피폭당한 체험을 겪고 오면서,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체험을 겪은 「일본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 한 것은, 매조리티(Majority)인, 일본인의 뒤에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이웃이 적은 숫자이나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이다.¹

65년의 이런 역사적 상황과,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 북한도 그 대열에 끼는 것이라든 것을 암시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하면,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의 생사학은 원폭/핵을 그 절실한 테마의 하나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생사학은, 일본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이 테마에 대해서 몇 세대에 걸쳐, 당사자 및 비 당사자가, 특히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거듭 언급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고찰, 시책 등 각 방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²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원폭을 테마로 한 생사학적 고찰을 시도해 보려 한

다. 구체적으로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라는 원폭 만화를 소재로, 거기서 그려진 원폭과 관련된 책임 추궁을 검토한다. 이하, 첫 작업으로,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가 분류되는 원폭 만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서 작중 세 장면을 선택하여, 피폭자인 주인공이 각 장면에서, 어떤 추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이 결과를 근거로,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관한 기존의 논고로부터 얻어진 통찰을 관련시켜 가면서, 가해자 대 피해자의 종래의 양자 대립에 회수되지 않는 원폭 책임론과 핵 없는 세상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본 발표를 매듭 지으려 한다.

2. 원폭 만화라는 장르

일본의 만화는, ①그 독자층이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60대 이상까지, 그리고 지식인 층에도 적지 않게 침투되어 있다는 것 ②그런 다양한 세대와 사회계층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한 장르를 커버하고 있다는 것 ③그 전체 출판물의 연간 판매 부수 점유율이 35%에 이른다는 것³, ④애니메이션화, TV 드라마화, 영화화 등의 「미디어믹스 media mix」에 의해서, 그 내용이 널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 다룰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원폭만화」라는 장르로 분류할 수 있다. 원폭만화를 원폭체험이 테마의 중심인 작품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층 수는 십여 편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락을 그 주목적으로 하는 만화로서는, 원폭이라는 테마 그 자체는 때때로 정치적·사상적 색채를 띠기 쉬운 지나치게 무거운 내용으로서 경원되어 온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⁴

원폭만화의 역사는⁵, 1957년에 다니카와 가즈히코(谷川一彦)가 소녀 만화 잡지 『좋은 사이(친구)』에 연재한 「별은 보고 있다」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수년 전에 히로시마 평화자료관(원폭자료관)에 의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⁶ 지금까지 이 장르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만화는, 1959년에

시라토 산페이 (白土三平)가 발표한 『꺼져 가는 소녀』로 되어 있었다. 『꺼져 가는 소녀』는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평판이 높으며⁷, 당시에 유행한 『불치병 소녀를 소재로 한』 만화, 원수폭 (原水爆) 금지 운동,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제 1 차 귀환 등, 이러한 시대배경하에 그려져 있다.⁸

그 후, 이 작품에 이어지는 만화는 오랫동안 간행되지 않았으며, 1960 년대에 들어와서도 원폭만화는 마이너스적 존재였다. 겨우 야마기시 료코 (山岸凉子)가 1967 년에 여성지 『세븐틴 (seventeen)』 8 월호에 「여름 우화」⁹ 라는 에피소드를 게재한 것과, 1969 년에 『어느 혹성의 비극 - 在東京・히로시마의 한 피폭자의 기록』¹⁰ 이라는 만화와 기록문이 한 권으로 묶어서 간행되었을 뿐이었다. 1970 년대도, 다쓰미 요시히로 (辰巳ヨシヒロ)가 『주간 플레이 보이』 1971 년 9 월 14 일호·21 일호에, 「지옥」¹¹ 이라는 작품을 게재한 시점에서는, 여전히 원폭 만화는 대히트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몇 년 후, 피폭자인 나카자와 케이지 (中沢啓治) (1939 년생)의 자전적 만화 『맨발의 겐』¹²의 등장으로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 이 작품은, 1973~74 년에 『주간소년 점프』에 연재되어, 1975 년에 전 4 권의 코믹으로 우선적으로 간행되자, 같은 해에 그것을 전국 피폭자 교사 모임과 히로시마 교육연구소가, 평화교육용 교재로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한데 힘입어, 전국적으로 독자를 획득해 갔다.¹³ 결과적으로, 『맨발의 겐』은 일본 전국의 많은 초, 중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었을뿐만아니라,¹⁴ 실사판 영화화 (1976 년·77 년·80 년), 애니메이션화 (1983 년·86 년), TV 드라마화 (2007 년)와 같은 매디아믹스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히트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독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2005 년 현재까지 적어도 11 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¹⁵

이렇게 『맨발의 겐』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오랫동안 원폭만화는 하나의 장르로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 종전 50 주년이 되는 1995 년에, 사에구사 요시히로 (三枝義浩)가 「히로시마의 증언」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만화를 간행했을 뿐이다.

다시 원폭이라는 테마가, 만화계 및 매스미디어 전반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21 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2004 년에 코우노 후미요 (1968 년생)의 『저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¹⁶이 간행되자, 같은 해 제 8 회문화청 메스컴 예술 만화부문 대상과 제 9 회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蟲) 문화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신문과 잡지에서도 절찬을 받으며, 2007년에는 실사판으로 영화화되어, 매스컴의 화제가 되었다.¹⁷ 이 만화는, 2010년 10월 29일 현재, 누계 판매 부수 38만 5천부를 기록하고 있다.¹⁸ 코우노는, 독자는 「남녀 같은 비율. 연령층은 20대부터 50대까지. 「만화 오타쿠」로 불리는 타입에서부터, 서평에 쓰여 있어서 읽어 보았다라는 사람까지」¹⁹ 다양하다고 전한다.

또, 코우노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의 속편인 『이 세상의 구석 한 편에』(상권·중권·하권)²⁰를 2008년부터 이듬 해에 걸쳐 출판하는데, 이것도(2009년도) 제 13 회 문화청 매스컴 예술제 만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다. 서평도 매우 호의적으로 쓰여진 것이 많아,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와 같이, 다수의 독자를 획득하고 있다(2010년 10월 29일 현재 전 3권 누계 판매부수는 24만 9천부)²¹. 코우노의 이런 작품들은, 『맨발의 겐』 이후의 대히트작이며, 정기적인 만화독자를 뛰어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원폭만화 장르의 새로운 고전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3. 책임 추궁의 장면 분석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一)』 『벚꽃의 나라(二)』 세 편으로 구성된 연작 단편집이다. 이 중, 본 발표에서는 『저녁뜸의 거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원폭투하로부터 10년이 지난 1955년, 히로시마의 모토마치 바라크 barrack(통칭 「원폭슬럼」)이다. 주인공인 미나미는 23세의 여성으로, 피폭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안 일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동료 남성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담담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3.1. 장면 1 : 「자기자신」을 향한 추궁 (15-16 쪽)

그러던 어느 날, 미나미는 목욕탕에서 사람들의 몸에 새겨진 피폭의 상처를 본다. 그러자, 피폭 직후의 참상의 플래시백 (flashback) 이 일어난다. 미나미는 자기자신의 몸에도 새겨져 있는 원폭의 각인 (stigma) 을 보면서, 마음 속으로 중얼거린다.

도대체가 이 동네 사람들은 부자연스럽다. 아무도 그 때의 일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아직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알고 있는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 자기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가끔 눈치채는 것이다. (15-16 쪽, 그림 1)

당사자임에도, 「이 동네」에 사는 우리들 피폭자 「아무도」, 10년전의 원폭투하로 인한 참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체험이라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미나미는 우선 그 책임을 추궁한다. 결국, 그 추궁은 같은 동네에 사는 우리들 피폭자 자신을 향하게 된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어 있다」라는 강렬한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대를 미나미는 「누군가」로밖에 특정하지 않고, 게다가 이 불합리한 행위의 주체를 비난하지 않고 단지 그런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 (「알고 있는 건……」). 또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고, 그것이 그들로 인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책임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은, 그 뉘앙스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었는데도 살아 남아 있다」라는, 상대방의 의도에 반하는 자신들의 상황에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더하고 있다.



그림1 ©저녁뜸의 거리, 빛꽃의 나라/코우노 후미요/후타바사

아무도 그 때 일을 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알겠는 건「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가끔 눈치채는 것이다 “아이고 미나미” “미나미”

“미안 미안, 탕에 들어가 있었더니 기분이 좋아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잘 수가 없다니까” “큰일이다! 「수수께끼 노래 게임」이 시작했겠다”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주어가 명시된다. 「나 자신」은, 왼쪽이 투하된 10년전의 8월 6일 이래, 「누군가」에게 존재를 부정당해도 반론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으로 정말 되어버린 것과, 10년이 지나서야 평온함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 일상속에서 가끔 불현듯 그 사실을 「알아차려 버리는」 것이, 왼쪽이 초래한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인간성 상실에 대한 공포의 표명인 것이다.

여기서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즉 「自己」)이

라는 뉘앙스가 선명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이라는 말에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의 「스스로의 몫²²」이라는 느낌이 남는다. 피폭에 의해 존재를 부정 당해도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미나미 자신이기도 한 동시에, 그녀와 같이 「스스로의 몫」을 이 마을의 피폭자 커뮤니티에서 얻고 있는 다른 피폭자이기도 하다고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책임 추궁을, 미나미는 동네의 다른 피폭자와 공유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장면 2 : 「나」를 향한 추궁 (22-26 쪽)

그런데, 다음의 추궁하는 장면에서는, 「나」의 「나 자신」으로부터 분화(分化)가 보다 더 선명해 진다. 다리 옆에서, 호감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 우치코시(打越)와 처음으로 키스를 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한 순간, 미나미는 다시 「그 날」의 플래시 백에 휩싸이면서, 우치코시를 뿌리치고 뛰어 가버린다. 그러나, 독방의 잡초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린다. (그 잡초는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은 형상으로, 미나미의 발에 휘감겨져 있다). 그리고, 플래시백은 미나미가 회상하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이어진다 -

8월 6일 (물 좀 주세요, 도와 주세요) 몇 명이나 죽어가는 것을 못 본체 했는지 모른다. 담 밑에 있던 급우에게 지금 사람 불러올게 라고 말만 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7일에는 카스미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다니고 있었다. 가끔 시체를 짓밟는 바람에 데여서 빨갱게 된 피부가 까져서 미끄러지기도 했다.……나는, 아직 썩지 않은 아주머니를 침착하게 골라서, 나막신을 훔쳐 신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넌 것은 8일의 일이었다.……강에 무수히 떠있는 시체에 카스미언니하고 와록(瓦礫)을 집어던졌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집어 던졌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스러웠던 도시의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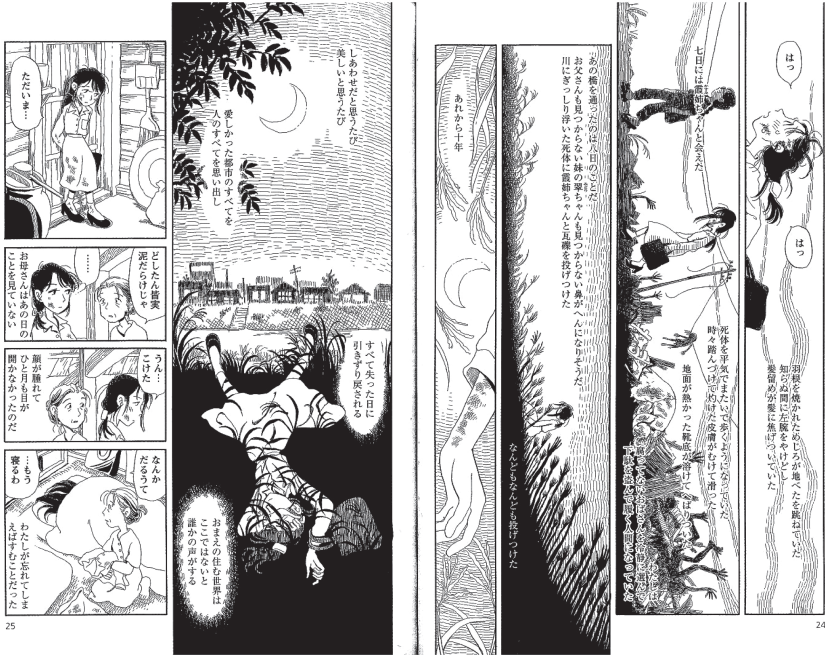


그림 2 ©저녁뜸의 거리, 빛꽃의 나라/코우노 후미요/후타바社

“혁혁” 날개가 타버린 동박새가 땅바닥을 팔딱거리고 있었다.
 저도 모르게 왼팔을 데이고, 머리핀이 타서 머리에 붙어 있었다.
 7일에는 카스미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짓밟아서 태인 피부가 까져서 미끄러졌다.
 뜨거워진 지면에 구두 밑창이 녹아서 늘어 붙었다.
 나는 썩지 않은 아주머니를 침착하게 골라서 나막신을 훔쳐서 신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 다리를 건넌 건 8일이었다.
 아버지도 못 찾고 여동생도 못 찾아 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강에 뿅뿅히 떠있는 시체에 카스미언니하고 와락을 집어던졌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집어 던졌다.

그리고 나서 1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스러웠던 도시의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날로 질질 끌려 되돌려진다.
 너가 사는 세계는 여기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거니? 미나미. 진흙 투성이잖아”
 어머니는 그 날의 일을 못 보셨어.
 “네, 넘어졌어요”
 얼굴이 부어서 한 달이나 눈을 못 뜨셨던 걸.
 “웬지 피곤해서” “...이제 잘래요”
 내가 잊어버리면 끝날 일이었다.

을 잃어버린 그 날로 질질 끌려 되돌려진다. 너의 사는 세계는 여기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23-25 쪽, 그림 2)

「담 밑에 있던 급우에게 지금 사람 불러올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다름아닌 「나」 였다.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다니면서 밟기도 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나막신을 시체에서 벗겨낸 것도, 「나」 였다.

단지,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은 사람을 모독한 것은 「나」 만이 아니라, 「카스미언니」도 그랬다. 그런데, 이 장면 앞의 30 쪽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 언니는 두 달 후에 죽어버린다 (30 쪽). 그리고, 죽음으로써, 살아서 사자(死者)에게 했던 행동은 면죄되어, 언니는 「나」의 공범자가 아니게 되어 버린다. 오히려, 그녀는 「너가 사는 세계는 여기가 아니야」라고 「나」에게 다그치는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 되어, 결국 비난은 「나」한테로만 향하게 된다.

몸 전체에 달라 붙은 잡초(죽은 자의 손)를 떨쳐내고, 그 추궁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와, 가깝스로 집에 돌아와보니, 어머니는 놀라서 미나미에게 묻는다 - 「어떻게 된거니? 미나미, 진흙투성이잖아」. 그 장면과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에는, 미나미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엄마의 얼굴과, 그 엄마를 뿌리치는 듯한 눈빛과 행동을 보이는 미나미가 그려지고, 동시에 그녀의 소리 없는 독백이 그려진다. -

엄마는 그 날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어. 얼굴이 부어서, 한달이나 눈을 뜨지 못했거든. 내가 잊어버리면 끝날 일이야. (25 쪽, 그림 2의 왼쪽 끝)

여기서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함께 그 동네의 피폭자로 살아온 어머니가, 사실은 미나미에게 있어서 결코 「나 자신」과 추궁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려진다. 이어지는 세 번째 장면에서는, 아버지는 직장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행방불명이 되고, 남동생은 5년이나 먼저 소개(疎開)되어 멀리 떠나 있어, 「완전히 낯선 소년이 되어, 히로시마에 돌아오는 것을 그 쪽 사투리로 싫어했었다」. 그 때문에, 고모 부부에게 「양자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결국, 어머니 이외의 다른 가족도, 미

나미하고 함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확인되어, 역시 책임 추궁은 「나」에게로만 향하게 된다.

이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나미는 「그 날」의 기억을 잊어보려는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면, 다 끝날 일이었다」, 그렇게 될 것이었다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된다. 그리고, 하마 쿠니히코(浜邦彦)가 「담 밑의 급우」 하고의 약속을 미나미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듯이, 「그 날」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약속이라는 언어행위가, 미나미를 그 장면에 붙들어 매고 있다. 약속한 상대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도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를 수 없었던 약속 - 여기서 기다려 - 으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은 채, 저 건너편에서, 미나미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²³

3.2. 장면 3 : 「원폭을 투하한 사람」을 향한 추궁 (28-34 쪽)

지금까지의 묘사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 있어서 원폭에 관련된 추궁은, 「그 날」의 기억의 영유와,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과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등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되풀이된다. 그리고, 사는 한 「그 날」의 기억과 생각을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면, 「나」에게 향해진 추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타자(他者)와 함께 서로 공유해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마침내 미나미는 우치코시에게 물어본다 -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치코시 씨하고 만나게 된 것을, 언니나 여동생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8 쪽)

우치코시는 그 질문에 대해, 「응……그렇다고 생각해」라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는 미나미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미나미는, 「아, 웬지 모르게 힘이 다 빠져 버렸어」라며 안도하고, 우치코시는 「히라노 씨, 살아줘서 고마워」라며, 두 사람은 손을 잡는다. 미나미의 삶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나미는 스스로를 추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될 자기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리고는 그대로, 힘이 자꾸 빠져 버렸다」.

그러나, 책임 추궁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나날이 약속된 미나미의 삶은 급속히 어렵게 변화해 간다 -

다음날 회사를 쉬었다……우치코시 씨한테 「너」라고 불렀다.……노래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그리고 그대로, 아침에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다.

아침에, 엄마가 죽을 꿇여 주셨다.……그리고 나서 오후부터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영양제를 놓아주셨다.……내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엄마도 나도, 언니의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게 되었다. 늦은 밤에, 시꺼먼 피를 토했다.(그림 3)

다음 날부터, 여러 사람들이 문병을 와 주었다.……그리고 드디어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아무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는 손이었다.

아프다. 목에 또, 미지근한 덩어리가 지나간다. 이미 단순한 피가 아니라, 내장의 파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팔은 고작 변기를 드는데도 힘이 든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져서 확인할 기력도 없다. 내일 하자……내일……(30-33 쪽)

겨우 자책에서 해방이 되어, 불안이 좀 덜 해질 무렵, 불안은 현실 - 원폭증(原爆症) - 로 되어 급속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미나미를 병들게 하였다. 여기에 와서 미나미는 마침내, 이 헤아릴 수 없는 불합리함을 자기자신에게 가져다 준 상대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추궁한다. 「기쁘니? 10년이 지났지만,



그림 3 ©저녁뜸의 거리, 빛꽃의 나라/코우노 후미요/후타바社

다음날 회사를 쉬었다
 “피곤이 쌓인거 같다”
 “그런가?”
 “와!?, 너 정말 숨씨가 영 아닌데”
 “그러니까 전부다 말했잖아”
 우치코시 씨한테 「너」 라고 불렀다.
 “와 줘서 고마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자”
 “달이 아주 밝아서” “멀리 돌아갈거나?”
 노래하는 거 처음 봤다
 “>이제 오늘로 못 보더라도”
 “추억은 버리지 말고 너와 맹세한 가로숫길”
 “돌아서자~ 가자”
 그리고 그것으로 아침에는 일어서지 못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죽을 만들어 주었다.

“어제 온 그 애, 아버지 젊었을 때하고 닮았어”
 “그럼 대머리 될려나”
 그러고는 오후부터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다.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놓아 주셨다.
 “왜 그럴까”
 카스미언니가 쓰러진 것은 그 날로부터 이를 뒤엎었다.
 “미나미 오래 살아야 돼” “응” “오래살아”
 보라색의 주름투성이가 되어서 가끔 갑자기 때리려고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니 숨을 거두었다.
 …내가 얇아 늙고부터는
 어머니도 나도 한마디도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밤 늦게 시커먼 피를 토했다.

원폭을 투하한 사람은 나를 보고, 『와! 또 한 사람 죽었다』 라고 분명하게 느끼고 있니?」

이 강렬한 빈정거림은, 「원폭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원폭이 무차별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을 보내려는 한사람 한사람인 「나」의 삶을 말살하는 무기라고 「분명히」 자각하고 사용한 것인지. 그리고, 「나」를 향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오랜 세월 잊지 않고, 그것이 실제의 「나」의 죽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것에, 「분명하게」 만족하고 있을까를 조용한 분노로 문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겨우 죽음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그 때, 결국 죽음의 썰물로 인해 피안으로 흘러보내져 버린 그 안타까움을, 미나미는 이 귀결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만든 자에게 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타자로 향한 이 분노의 추궁마저도, 미나미는 임종의 순간에 그 공격의 화살을 무디게 하고, 독백과 같은 한탄으로 바꾸어 버린다. - 「너무하다. 나는 틀림없이 안 죽고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운(運)의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특정의 「원폭을 떨어뜨린 사람」을 가해자화하는 마음이 억제되어 있다.

4. 가해와 피해의 양자대립을 극복하며 원폭의 비애과 일상의 슬픔을 읽어낸다

4.1. 상처 받은 자를 자책하게 만드는 원폭의 비애

원폭 책임론의 틀에서는, 침략전쟁을 악착같이 계속하면서, 여러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원폭투하는 필요했다 - 즉, 가해자 스스로가 초래한 벌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 라는 인식이, 미국에서는 주류이다²⁴. 또, 한국어판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 출판에 즈음하여, 현지의 출판사가, 작가와 일본의 출판사의 양해를 구한 다음, 「원폭투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이것은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쓰여진 이야기이다」라는 머

릿글을 첨부한 판단으로 보아, 가해국 일본의 횡행 저지에 의한 제2차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원폭투하라는 견해가, 한국에서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²⁵

원폭 만화의 고전이기도 한 『맨발의 겐』에는, 주인공 겐의 어머니 키미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있다 -

일본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만해! 전쟁에서 한몫 버는 놈들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천황폐하를 믿고 알몸이 되어...천황폐하도 너무 하지... 전쟁에 질 걸 알았으면, 왜 좀 더 빨리 전쟁을 그만두지 않았는지 말아야... 하다 못해 일주일 전에 전쟁이 끝났더라면, 히로시마도 나가사키도 신형폭탄에 당하지 않고 몇 십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끝났을 텐데 말이야... (3권 193 쪽, 그림 4)



“정말 일본사람은 축복받을 만해. 전쟁에서 한 몫 버는 놈들한테 완전히 놀아나고, 천황폐하를 믿고 알몸이 되어...”
 “천황폐하도 너무하지...”
 “전쟁에 질 걸 알았으면, 왜 좀 더 빨리 전쟁을 그만두지 않았는지 말아야...”
 “하다 못해 일주일 전에 전쟁이 끝났더라면 히로시마도 나가사키도 신형폭탄에 당하지 않고 몇 십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끝났을 텐데 말이야...”
 “벌써 동경이나 일본 전체의 여러 도시가 B29 공습으로 다 타버려 일본이 질 것이라는 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림 4 ©나카자와 케이지/쇼우분社

이 묘사에서는, 「가해자 일본」과 같은, 나라 단위로 묶는 방법은 채용되지 않았지만, 가해자로서의 「전쟁에서 한몫 버는 놈」이나 「천황」에 대해서, 그들에게 놀아난 「축복받은」 일반서민=피해자라는 양자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놀아난」 침략전쟁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로서의 역시 우리들 일본인은 가해자이고, 원폭이 떨어진 것은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 도식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분석한 「저녁뜸의 거리」에서는, 원폭에 관련된 추궁은 「이 지역 (= 히로시마)」의 피폭자인 「나 자신」과 「나」에게 돌려져 있다. 자기자신에게 돌렸다는 의미에서, 추궁의 벡터는 앞의 『맨발의 겐』의 예와 겹친다. 그러나 책임 추궁의 내용을 보면, 원폭을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보다도, 원폭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가해와 피해의 대립구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앙을 초래한 자를 특정해서, 그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저녁뜸의 거리」에서는 재앙을 초래한 자가, 살아남아 있다는 이유로 (죽은 자를 매개로) 자기자신을 추궁하는 구도가 중심이 되어, 원폭책임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양자대립이 우회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저녁뜸의 거리」에서 묘사되어 있는 추궁에는, 앞의 분석에서 본 것처럼, 일인칭 복수형의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과, 일인칭 단수형의 「나」에게 향해진 것이 있지만, 어느 쪽도 소위 자책인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재앙을 당한 생존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생존자의 죄책감 (survivor's guilt) - 자기자신이 살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존자가 갖고 있는 죄의식 - 이다. 생존자의 죄책감은, 구했어야 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또는 나 대신 그 사람(들)이 죽었다, 라는 죄악감에 근거하고 있다.²⁶

여기서 이 정의에 일견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 자책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미나미가 언니와 같이 「강에 뻘뻘이 떠있는 시체」를 향해 와류를 몇 번이고 던지고 있는 행위이다. 만약 생존자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죄악감이 마음속에 있다면, 미나미는 왜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고 와류를 던지는 모독을 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앞에서 기술한 하마(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저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강 위를 메우고 있는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신도 또한 그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은,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너는 어찌다 머리털 하나 정도의 우연으로, 이런 모습이 안 된 것 뿐이야, 라고 속삭인다. 나 자신이 그렇게 됐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나를 모멸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 자기는 내버려두고 먼저 죽어 버린 사람들에게 향한 비난, 그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²⁷

죽은 자로 부터의 추궁을 추궁으로 되물음으로써 상쇄하려는 듯이 보이는 이 행위는,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죽은 자를, 자책을 위해 이용하고 그 위에 더욱 책임을 가하고 있어, 상쇄하기는 커녕 자책을 배가시키게 된다.

「저녁뚝의 거리」에서, 미나미는 죽은 자를 밟기도 하고 건너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와류를 던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왼쪽에 의해 일상을 뚫고 갑자기 나타난 생지옥을, 실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즉, 미나미의 삶의 대가로, 죽은 자는 확실히 죽고, 이용당하고, 모독을 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미나미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그날(그 참극)」의 기억의 영유이며, 플래시 백이며, 죽은 자가 부르는 소리가기도 했다.

결국 이 작품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피폭이 초래한 참상을 살아남으려 하면 그것이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동등하게 -

- ① 이러한 자책 - 아우슈비트 생존자인 뿌리모 레비 (Primo Levi) 가 말하는 「인간적인 연대에 있어서 실격했다는 고발, 혹은 자기고발」²⁸ - 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② 그 책임을 질 경우, 자신의 체험을 타자와 공유하는 것과, 그 귀결로

서 타자에게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 ③ 가령, 이것들을 실현시키고 자책에서 해방되어도, 원폭증에 의해 목숨을 잃는 공포는 따라다니고, 그것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④ 처음부터 나를 향해서 원폭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거기에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소하려고 하는 「누군가(같은 인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는 것.

- 이었다. 그리고, 이미 상처받은 자의 이러한 자책에 의한 고통의 증대는, 핵무기가 있는 한, 장소·사람·시대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것은 인류전체의 비극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폭에 관련된 책임 추구를 생각할 때, 인류에 이러한 비애를 초래하는 병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 사용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상당수 생산·보유하고 있는 것의 책임은, 개개의 국가나 집단을 넘어 인류전체의 차원으로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1. 원폭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던 일상의 슬픔

원폭책임론을 가해와 피해라는 양자대립에서 벗어나서, 원폭이 인류 전체에 초래한 그 비애를 묻는다 - 본 발표에서는, 「저녁 뜬의 거리」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이, 「히로시마의 기억의 세계화, 원폭의 기억의 보편화를 포장하면서, 사실 유일한 피폭국 일본이라는 민족적인 잠재적 감상에 호소하려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²⁹는 평가도 한 편에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카와구치 다카유키(川口隆行)는, 코우노가 꿈꿈이 그려낸 미나미의 일상생활의 장소인 「원폭슬럼」에서는, 실제로 그 대다수의 주인이 본래 그 커뮤니티를 발전시킨 제일 조선인이며,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어떤 식으로도 관련된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오오타 요코(大田洋子)와 오오에 켄자부로(大江健三郎)의 원폭문학을 인용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코우노가 오오타처럼 「원폭슬럼」을 그리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염려를, 다

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가, 피폭 60년을 앞두고 「일상의 시점(視點)」으로 「평온한」 원폭의 기억표상화를 해냈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치른 것이, 다소 표현은 지나칠지 모르나, 피폭도시의 기억의 횡령과 같은 그런 사태가 아니었을까. 이미지에 있어서의 배타적 점유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것은,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맥까지 가시화하지는 못 한 것이다.³⁰

그러나, 코우노는,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맥을 피폭자의 원폭 체험과 관련시켜 정확하게 가시화할 목적으로, 주인공의 미나미가 일상을 보내는 동네를 꼼꼼이 그리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고, 특징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개되는 사소한 일상의 매력을, 그것을 위협하는 피폭에 의한 자책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명확하게 대비하면서, 그것을 슬픔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꼼꼼이 그리려고 했던것은 아닐까?

본 발표에서 인용한 그림 어느 것을 보더라도, 여기저기에 당시의 일상성을 상징하는 것 이나 행위가 그려져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히로시마의 모토마치 바라크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두면서도 어디에서도 보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일상의 사소하지만 확실한 영위를 크로즈업할 목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묘사는 「피폭도시의 기억의 횡령」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피폭도시의 기억의 일부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실제의 모토마치 바라크의 주된 주민이었던 제일 조선인의 생활이나 그들과 주인공들의 연관을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 작품의 일본인 독자들의 내셔널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직결된다고, 나로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확실히, 왜 코우노가 이런 내용을 그리지 않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녀가 피폭도시 히로시마를 표상(表象)해 가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유일한 피폭국 일본의 「히로시마」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며 보편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Hiroshima」로도 그리려고 한것은, 「히로

시마가 있는 일본이 있는 이 세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4 쪽) 라는 표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코우노는 결코 피폭자의 일상적 묘사를 내셔널한 레벨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고, 「広島 / 히로시마 / Hiroshima」라는 중층성을 염두에 두고, 『저녁뜸의 거리, 벚꽃 나라』를 창작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4.2. 비애의 이야기 『저녁뜸의 거리, 벚꽃 나라』

또 하나의 핵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호소 방법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는, 원폭이 인류에게 주는 비애와 원폭으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일상에 대한 연민의 이야기 — 즉 비애의 이야기 —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원폭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이야기로 해석되는 『맨발의 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녁뜸의 거리, 벚꽃 나라』의 작자인 코우노가 戰無派세대인 데 반해 『맨발의 겐』의 작가인 나카자와는 피폭자·전쟁 체험자이기 때문에 테마에 대해서 갖는 거리 감각이나 접근해 가는 데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저녁뜸의 거리, 벚꽃 나라』의 시대 설정이 원폭 투하 10년 후와 약 50년후로, 원폭증과 비밀스럽게 전개되는 피폭자 차별에 조준되어 있는 것에 비해, 『맨발의 겐』은 주로 원폭투하 직전부터 투하후 2년간을 그리고 있어, 피폭의 직접적인 피해와 비참함, 그리고 노골적인 피폭자 차별에 조준되어 있는 것도, 두 작품의 차이를 선명히 나타내고 있다.

덧붙여, 한 쪽의 주인공이 23세 여성인데 비해, 한 쪽은 10세 소년 — 일방적인 가해에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순진무구한 존재로 그리기 쉬운 대상³³ — 인 것도 두 사람의 차이를 선명히 나타나고 있다.

단지,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호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두 사람 모두 일반시민의 시점과 인간의 감성을 중시한 측면에서 이러한 세계 실현에 호소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과 같은 원폭 만화의 고찰은, 구미사회가 근년 채택하고 있는, 핵테러리즘의 위협과 거기에 맞선 방위를 강조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또는 이성을 중시하여 호소해 가는 접근³⁴과 다른, 또 다른 호소 방법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끌게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이 상징하는 후자일 것이다. 그러나, 핵없는 세상을 호소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이성중시형의 접근으로 형성된 국제적인 여론(public sentiment) 뿐 만이 아니라, —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시점(視點)을 둔 감성 중시의 접근이 낳은 여론(public sentiment)³⁵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확실히 지금까지도 『맨발의 겐』과 같은 작품이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일본인 외에도 읽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레벨로 핵없는 세상을 호소하는데 있어서 여론 형성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 피해의 양자 대립의 틀을 뛰어 넘은 『저녁뜸의 거리, 벚꽃 나라』가 등장하여, 국제적인 여론 형성에 다시금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본고에서 확인되었다. 이 원폭만화가 앞으로 핵 없는 세상을 호소해 가는데 있어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영향력이 주목된다.

[註]

- 1 2007年 현재, 북한에서는 382명의 피폭자의 생존이 확인되었다(「북한 피폭자 기록영화, 十三에서 상영 원호없는 고뇌, 카메라가 따라가다」, 『아사히신문』, 2010年 9月 19日, 조간, 오사카 시내·1지방 29면). 그리고, 2004年 1月 7日 현재, 한국원폭피폭자협회 전국 등록자수는, 2,140명이었다(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자료 2 원폭피폭자복지회관, www.asahi-net.or.jp/~hn3t-oikw/, 2010年 9月 30日 열람). 중국인피폭자·재중피폭자 정보는 적으나, 나가사키 우라카미형무소와 히로시마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국인 포로의 피폭(우라카미: 27명폭사, 히로시마: 19명피폭 10명폭사) 정보를 인터넷상에서볼수있다(중국인피폭자에 대해서, www.no-more-hiroshima.com/zaigai/zaigai14.htm; 히로시마. YWCA 히로시마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는 모임, 10. 요시지마형무소 담과 安野발전소(중국인피폭자·포로노동), ww3.enjoy.ne.jp/~simoi1329/sensouiseki/11yosijimauasunochuugokujin.htm; 두 내용을 2010年 9月 30일에 열람).

- 2 그림에도 불구하고 생사학이라는 틀을 명시하고, 원폭/핵을 테마로 한 연구는, 본인이 현시점에서 아는 한, 다음의 한 건뿐이다. 스에히로 마유미 (末廣眞由美) (2008) 「나가사키평화공원 - 위령과 평화를 기도하는 눈으로」 오사노 시게토시 (小佐野重利)・키노시타 나오유키 (木下直之) 편저 『死生学 [4] - 죽음과 사후를 둘러싼 이미지와 문화』 수록, 동경대학출판회 : 199-232 쪽.
- 3 출판과학연구소 데이터.
- 4 나카노하루유키中野晴行 (2010) 『「꺼져 가는 소녀」 독본 - 핵무기의 공포와 만화』, 小学館 (『꺼져 가는 소녀』 전편특별부록).
- 5 여기서 열거하는 작품 모두는, 이미 히로시마의 원폭체험을 테마로 한 것이다. 나가사키를 무대로 한 원폭만화는, 본인이 아는 한 다음 두 권뿐이다. 이시카와 마미 (2005) 「안제라스의 중」, 『1945年 10代の 전쟁』 수록, 講談社 : 3-116 쪽. 니시오카 유카 (西岡由香) (2008) 「여름의 잔상 - 나가사키의 八月九日」, 凱風社.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 앞으로의 미디어론적인 분석이 기대된다.
- 6 발견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하 참조 : 「환상의 원폭만화 발굴 자료관에서 전시 『맨발의 겐』의 16년전 연재」, 『아사히신문』, 2010年 1月 8日, 석간, 東京本社, 12面.
- 7 유아사 마나부 (湯浅学) (2009) 「(BOOK 안 읽고는 못 읽는다) 『꺼져가는 소녀』 시라토 산페著 - 박복한 소녀와 시라토 만화의 분노」, 『週刊AERA』, 6月 29日号, 92쪽.
- 8 현재는 복간판을 입수할 수 있다. 시라토 산페 (2009) 『꺼져 가는 소녀 전편・후편』 小学館. 이 만화의 후편에는, 주인공인 원폭증의 일본인 소녀와 일본에 강제연행된 조선인 남성 李貴道와의 교류 (비애)가 그려져 있다.
- 9 야마기시 료코 (山岸凉子) (2010) 「여름 우화」, 『야마기시 스페셜 섹션VI 여름 우화』, 潮出出版, 265-315 쪽.
- 10 극화・아사오카 코지 (旭丘光志)、수기・草河達夫 (1969) 『어느 혹성의 비극 - 在동경・히로시마에 있어서 - 피폭자의 기록』, 講談社.
- 11 타즈미 요시히로 (辰巳ヨシヒロ) (2003) 「지옥」, 『대발굴』, 青林工藝舎, 3-31 쪽.
- 12 나카자와 케이지 (中沢啓治) (1975-1987) 『맨발의 겐 1권 - 제 10권』, 汐文社. 나카자와는, 『맨발의 겐』 이외에도 원폭을 테마로 한 많은 작품을 그리고 있다.
- 13 시카다 토시아키 (四方利明) (2006) 『「경계境界」에서 만난 「他者」』, 요시무라 카즈마・(吉村和真)・후쿠마 요시아키 (福間良明) 編著 「『맨발의 겐』이 있는 풍경 - 만화・전쟁・기억」, 粹出書房, 182-210 쪽
- 14 이토 유 (伊藤遊) (2006) 『『맨발의 겐』의 민속지』, 요시무라 카즈마・후쿠마 요시아

- 키 편저 『「맨발의 겐」이 있는 풍경 - 만화·전쟁·기억』, 粹出書房, 147-181 쪽.
- 15 11 개 국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러시아,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노르웨이어, 에스페란토어이다 (위키백과: 맨발의 겐, http://ja.wikipedia.org/wiki/%E3%81%AF%E3%81%A0%E3%81%97%E3%81%AE%E3%82%B2%E3%83%B3#cite_ref-19, 2010年9月30日 열람). 그리고, 「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수용되어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국에서는, 원래부터 만화독자 인구가 비유적으로 일본보다 많지는 않은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 10 권 합계로 약 4 만부 정도의 판매부수에 그쳤다 (야마나카 치에 (山中千恵) (2006) 「읽을 수 없는 「체험」· 넘을 수 없는 「기억」, 요시무라 카즈마· 후쿠마 요시아키 편저 『「맨발의 겐」이 있는 풍경 - 만화·전쟁·기억』, 粹出書房, 211-245 쪽).
- 16 코우노 후미요 (2004)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 双葉社.
- 17 공식사이트 (<http://www.yunagi-sakura.jp/>).
- 18 双葉社の 다이토씨에게 2010年10月29日에 전화확인. 내역은 단행본 30 만 5 천부, 문고판 8 만부였다.
- 19 「시대의 카타리스트 (36)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를 걷자 - 코우노 후미 氏 + 소메야 마코토氏」, 『JMA Management Review』, 제 11 권 제 12 호 (2005年12月号), 20-24 쪽. 인용부분은 21 쪽.
- 20 코우노 후미요 (2008-2009) 『이 세상 한 구석 한 편에』 (상권·중권·하권), 双葉社.
- 21 출전은 각주 14 와 같음. 내역은, 상권 8 만 9 천부, 중권 8 만 2 천부, 하권 7 만 8 천부이다.
- 22 키무라 빈 (木村敏) (1972) 『사람과 사람사이』 동경: 弘文堂. 키타야마 시노부 (北山忍) (1998) 『자기자신과 감정』 동경: 共立出版.
- 23 하마 쿠니히코 (浜邦彦) (2008) 「살아남은 자의 <수치> -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로 보는 신체·언어·성」, 『大阪経済法科大学아시아太平洋研究センター年報』, 제 5 호, 30-37 쪽. 인용은 32 쪽.
- 24 이이다 마모루 (飯田守) (2010) 「My Book 77 여행을 위한 한권의 책 - 『원폭의 아이』 (상·하) 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 이사장 스티븐·리퍼」, 『아고라』, 8 월호, 68-69 쪽.
- 25 스미다 요시타카 (隅田義孝) (2005) 「피폭을 그린 만화 『저녁뜸의 거리, 벚꽃의 나라』, 한국에서 번역출판」, 『아사히신문』, 10 월 14 일, 사회면, 15 쪽.
- 26 노다 마사아키 (野田正彰) (1997) 「遺志의 사회화라는 프로세스」, A. Deeken · 야다 기다 쿠니오 (柳田邦男) 편 『<돌연사> 와 Griefcare』, 동경: 春秋社, 22-46 쪽.

- 27 하마 (浜) (2008) 전갈서, 35 쪽.
- 28 하마 (浜) (2008) 전갈서, 33 쪽에 인용된, 뿌리모 레비 (Primo Levi), 저서 『물에 빠진 자와 구원 받은 자』 수록, 「치욕」에서 발췌.
- 29 카와구치 타카유키 (川口隆行) (2005) 「미디어로서의 만화, 되살아나는 원폭의 기억 - 코우노후미요 『저녁땀의 거리, 벚꽃의 나라』 시론」, 『원폭문학연구』, 제 4 호, 83-92 쪽. 인용부분 88 쪽.
- 30 카와구치 (2005) 전갈서, 90 쪽.
- 31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절실한 사랑이나 자애의 마음을 의미한다.
- 32 사회학자인 이노우에 슌 (井上俊) 에 의하면, 「戰無派」는, 「戰前派」·「戰中派」·「戰後派」와 같은 세대론적인 구분의 하나이며,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전후의 문화속에서 게다가 그 안에서만 스스로를 형성해 온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쪽, 강조는 원문). 「戰後派」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戰後派」라는 구분은, 「戰無派」라고 부를 수 없는 종전 직후의 혼란을 체험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노우에 슌 (1975) 『의미있는 죽음의 상실 (死にがいの喪失)』 筑摩書房.
- 33 오즈키 타카히로 (大月隆寛) (2007) 「『전쟁=비참』이라는 도식의 빈곤 - 『체험』을 다른 『이야기』로 환생시킬 필요성을 생각하다」 『정론 (正論)』 2007年 11月호, 210-222 쪽.
- 34 이 노선은 2007年 1月 4日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에, 「핵무기 없는 세상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을 제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한 조지·슐츠 전 미국무장관, 윌리엄·페리 전 미국방장관, 헨리·킨저 전 미국부장관, 삼·난 전 미상원의원이, 구상·유지해 온 것이다. 그들은 Nuclear Security Project (NSP : 핵안전 프로젝트를)를 조직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빠른 실현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밟아야 하는 10 개의 구체적인 스텝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nucleartippingpoint.org/nuclear_security_project/index.html ; 2010年 9月 30日 열람) . 2009年 4月 5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소위 「핵없는 세상」 연설)에서, 「핵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글로벌·이니셔티브」을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이 노선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5 사토 타쿠미 (2003) 「에매한 일본의 「여론」, 사토 타쿠미 편 『전후여론의 미디어 사회학』, 동경 : KASHIWA 학술라이브러리, 11-23 쪽.